



전남미용고 임사랑이 14일 대구 동구 만촌동 만촌경기장에서 열린 제 93회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뒤, 전용준 회장 등 전남 사이클 연맹 임원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박건우기자

전남사이클, 전국체전 전남성적 전인

금 5·은 2·동 4 ... 나아름·임사랑 2관왕
지역 명성 톡톡, 고등·일반부도 메달 예상

제 93회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에서 전남 선수들이 15일 현재까지 금 5개, 은 2, 동 4개를 획득하며 지역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나주시청 나아름은 지난 11일 3km 개인추발에서 3분 58초 72의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해 전남에 은메달을 선사했다.

뒤 이어 전남은 본격적인 금메달 사냥을 시작했다. 13일 전남미용고 임사랑이 경륜에서, 금성고 김지훈이 24km포인트레이스에서 각각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임사랑은 14일 스프린트에서도 1위로 결승점에 골인하며 2관왕에 이름을 올렸다.

임사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주위의 각광을 받던 선수다. 임사랑은 지난해 제 13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여자고등부 속도경기 1k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사이클 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넣었다. 이어 임사랑은 제 92회 전국체전 단체스프린트 동메달, 제 29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 대회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임사랑은 14일 스프린트 경기를 마치고 시상대에 오른 뒤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셔서 조금은 부담이 됐지만 생각보다 기록이 잘 나온 것 같다"며 "남은 경기도 팀원들과 잘 협력해서 좋은 성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철 전남미용고 감독은 "전국체전을 앞두고 집중했던 야간 훈련과 현지 훈련이 선수들에게 많은 보탬이 된 것 같다"며 "다음 경기에서도 전남미용고 선수들의 선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용준 전남사이클연맹회장이 임사랑에게 금메달을 걸어주고 있다.

또 이날 나아름도 24km포인트레이스에서 33분의 기록으로 전국체전 4연패의 위업을 쌓았다.

15일 나아름은 도로개인독주25km에서 35분 15초 1위로 골인하며 개인 2관왕을 달성했다. 이로써 전남은 사이클에서만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나아름은 전남미용고를 졸업하고 2010년 광주아시아게임 2012년런던올림픽 국가대표를 지냈다. 나아름은 2010년 전국체전에서 개인추발 3km 은, 단체추발, 24km포인트레이스, 개인도로, 도로개인독주 25km에서 4관왕을 수립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또 이날 나주공업고 박지은이 도로개인독주15km에서 22분 32초로 은메달을 땀다.

임사랑과 나아름의 메달 획득에 이어 지난 13일에는 나주시청 이연정, 신혜수, 나아름 조가 3km단체추발에서 3분 47초 254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같은 날 전남미용고 유하나도 스크래치에서 3위를 기록했다. 또 이날 강진군청 홍의철이 경륜에서 동메달을 손에 넣었다. 14일 나주시청 이은지는 스프린트 종목에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전남은 16일 오전 10시 사이클 남자 고등부에 이어 오전 10시 5분 남자 일반부에 선수들을 내보낸다.

17일에는 나아름이 도로경기에서도 한 차례의 금메달을 노린다.

나주시청 양재환 감독은 "지금 선수들의 분위기와 컨디션이 아주 좋다"며 "앞으로 예정된 고등부와 일반부 경기에서도 전남 선수들의 메달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구=박건우기자

수영 남자 자유형 50m 10년만에 韓 기록 경신

전남 양정두 세 차례 한국 기록 수립

수영 남자 자유형 50m 한국 기록이 10년 만에 깨졌다.

그것도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와 박민규(25·고양시청)는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똑같이 22초52에 레이스를 마쳐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동메달은 23초02를 기록한 왕지웅(경성대)에게 돌아갔다.

자유형 50m 종전 한국 기록은 2002년 제2회 코리아오픈대회에서 당시 한진중공업 소속이었던 김민석 현 대표팀 코치가 작성한 22초55였다.

양정두와 박민규가 이를 10년 만에 0.03초 줄였다.

특히 양정두는 12일 열린 이번 대회 접영 50m 경기 때 예선(23초91)과 결승(23초77)에서 잇달아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데 이어 이



번 대회에서만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양정두가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메달은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하나(계영 400m) 등 세 개로 늘었다.

박민규도 계영 400m 금메달에 이어 2관왕에 올랐다. 대구=박건우기자

광주시청 기보배 양궁 금 명종

‘신궁커플’ 오진혁(현대제철)과 기보배(광주시청)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남녀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나란히 명종시켰다.

오진혁은 15일 대구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임동현(청주시청)과의 결승에서 세트점수 6-0(29-25 28-27 28-27)으로 가볍게 이겨 금메달을 땀다.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 오른 기보배(광주시청)도 장진희(예천군청)를 6-2(28-28 29-28 30-28 27-27)로 돌려세우고 1위를 차지했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대표팀 동료인 최현주(창원시청), 이성진(전북도청)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른 기보배는 4강전에서도 박지훈(순천시청)을 6-4(27-29 29-26 29-27 30-



승부를 기록했지만 2세트에서 첫발과 두 발을 연이어 10점에 꽂으며 세

기보배 첫 金... 광주 양궁 "오늘은 골든데이"



전남 수영 양정두 또 한국新

광주시청 양궁 기보배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초반 부진을 씻고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런던 올림픽 2관왕의 자존심을 세웠다. 전남 수영의 양정두는 한국신기록 3개를 쓰며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다.

기보배는 15일 오후체육공원양궁장에서 계속된 대회 5일째 여일부 개인전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켰다.

대회 첫날인 12일 70m와 13일 50m에서 각각 아쉬운 3위에 그쳤던 기보배는 이날 대회 첫 금을 쏘아 올렸다. 기보배는 이날 단체전 16강을 통과해 16일 대회 2관왕을 노리게 됐다.

광주여대·여고부 광주체고·남대부 호남대도 각각 8강에 진출해 16일 광주양궁의 골든데이가 예상된다.

올해 창단돼 남녀 동반 우승에

도전했던 광주시체육회 스키시는 금1·은1개를 땀다.

여자부는 인천선발팀을 2-0으로 꺾고 우승컵을 들었지만 뒤이어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인천팀에 0-2로 져 동반 우승이 좌절됐다.

창단 6년만에 전국체전에 첫 출전한 광주대 축구는 동메달에 만족했다. 광주대는 4강에서 경희대와 만나 전반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3골을 내리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대회 초반 부진했던 전남은 각종 기록을 작성하며 중반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내고 있다.

수영 양정두는 남일부 자유형 50m에서 22초52로 1위로 골인했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때 김민석의 22초55의 기록을 10년만에 0.03초 줄였다.

지난 12일 대회 첫날 접영 50m에서도 예선과 결선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던 양정

두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육상에서는 대회신기록이 나왔다.

전남체고 한원남이 남고부 원반던지기에서 52m40을 던져 3년전 90회 체전때 김석규가 세운 51m36의 기록을 1m가량 더 던졌다.

전남은 중장거리 육상에서 연일 금 소식을 날렸다.

하프마라톤에서 백승호(건국대)와 강성권(한체대)이 나란히 1·2위로 결승선에 도착했다. 백승호는 이틀전 5000m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사이클에서는 나아름(나주시청)이 도로개인독주 25km에서 우승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이밖에 전남은 곡성군청이 여자볼링 5인조에서 우승했고 태권도에서는 남일부 -87kg급 윤희성(한국가스공사)과 여대부 -67kg급 서소영(용인대)이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대구=정소연 기자 sypassion@

"우리는 조정 부녀"

장성군청 고광선 감독·문향고 예령 부녀 화제
고예령, 銀2 획득 "아빠처럼 국가대표 되고파"

"아버지 뒤를 이어 국가대표가 꼭 될겁니다."

"오랫동안 꾸준한 선수로 뛰면서 비인기종목인 조정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올 전국체전 전남 조정팀에 아빠와 딸이 한팀으로 출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성문향고 고예령(1년)과 장성군청 조정팀 감독이자 전남조정연맹 전무를 맡고 있는 고광선씨다. 고예령은 고 감독의 첫째딸로 광주유덕초교와 전남체중 2학년 때까지 수영 선수였다.

주종목이 접영인 고예령은 소년체전을 비롯해 각종 전국대회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고심 끝에 고 감독은 딸에게 종목 전환을 권유했고 예령이는 지난해 노를 잡기 시작했다.

조정 선수였던 아버지·어머니

의 피를 물려받은 고예령은 그저 그런 수영 선수에서 미래가 촉망한 조정 선수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조정 선수로 첫 출전한 지난해 고양 소년체전에서 더블스컬 금메달을 땀다.

올해 장성문향고로 진학한 고예령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전국체전 첫 무대에서 뛰어남 기량을 선보였다.

문향고가 출전한 3종목 가운데 더블스컬과 쿼터러플스컬 2종목에 출전한 고예령은 당초 목표했던 은메달 2개를 당당히 목에 걸었다.

고예령은 "수영보다 조정이 더 힘들어요. 하지만 종목 특성상 레이스 운영 등 수영과 조정이 비슷한 것 같아 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녀 조정인인 장성문향고 고예령과 장성군청 고광선 감독이 전국체전에서 선전을 다짐하며 활짝 웃고 있다.

고예령은 "아버지와 함께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하다 보니 주위에서 관심을 더 가져준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부담감도 크다. 하지만 집에서 레이스 운영이나 기술 등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셔서 좋다"고 이야기했다.

고 감독도 만물이 자신의 뒤를 이어 조정 선수가 된 것이 대견하다. 너무 좋아서 주변에 한껏 자랑하며 자신과 고독한 싸움을 펼쳐야 하는 비인기종목 선수가 된 딸이 한없이 안쓰럽다.

때문에 고 감독이 딸 예령이에 게 바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고 감독은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지만 꾸준한 선수로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정을 알렸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딸 예령이의 꿈은 당차다. 국가대표였던 아버지 뒤를 이어 태극마크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번 체전 입상자 중 상비군을 선발한다.

딸의 재능을 인정하는 고 감독은 "예령이 키가 170cm인데 더 커야한다. 그래야 노를 저을 때 유리하다"며 "그래도 어렸을 때 수영을 해 팔 힘이 좋아서 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은근 자랑했다.

대구=정소연 기자 sypassion@



전국체전 하프마라톤에서 금·은메달을 목에 건 전남 대표 백승호(오른쪽 3번째)와 강성권(왼쪽 3번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 격려금을 받았다.

기록경기 조정, 한국新 없는 이유는

자연조건 매번 바껴 순위만 인정

기록경기 조정이 기록이 남지 않는 이유는.

전국체전에서 펼쳐지는 경기는 크게 기록·단체대진·개인대진 등 3종목으로 나뉜다.

기록경기는 기록으로 순위를 정한다. 또 대회에서 세워진 기록은

공인 기록으로 인정돼 대회·한국·세계신기록 등으로 남게 된다.

하지만 기록경기로 분류됐지만 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종목이 하나 있다. 바로 조정이다.

매경기 똑같은 조건에서 레이스를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육상의 경우 바람의 세기인 풍속에 따라 기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시청 육상 박태경은 올 4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육상대회에서 런던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기준 기록(13초60) 통과를 목표로 출전했다.

박태경은 13초57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런던행을 결정짓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풍속이 +2.1m/s로 기준 +2.0m/s를 넘어 아쉽게 기록을 인정받지 못했고 박태경은 결국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했다.

조정도 똑같은 조건에서 경기를 펼쳐야 한다는 점은 육상과 같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바람의 세기는 물론 파도의 높이, 심지어 수심까지도 레이스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한다.

이 많은 사항을 다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은 기록경기에 포함됐지만 경기 후 남은 기록은 순위 뿐이다.

대구=정소연 기자 sypassion@

광주시청 기보배 전국체전 첫 금 수확

개인전 우승...전남 양정두·백승호 2관왕

2012년 런던올림픽 2관왕의 기보배(광주광역시청)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첫 금을 수확했다.

기보배는 15일 대구시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여자일반부(이하 여일반) 양궁 개인전에서 장진희(경북)에 6-2로 승리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12일 광주선수단에 첫 금을 쏘아 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양궁 70m에서 아쉽게 동메달을 따낸 기보배는 13일에도 50m서 동메달에 그쳤다.

개인종목 마지막날인 개인전에서 기보배는 올림픽 2관왕의 저력을 보여줬다.

기보배는 16강전서 6-0 완승을 거둔 뒤 8강전서 런던올림픽단체전 금메달을 함께 수확한 이성진(전북)

과 맞대결을 펼쳤다. 1세트를 비긴 뒤 2세트를 패하고 3세트를 비겨 위기를 맞았지만 기보배는 4세트를 28-26으로 이긴 뒤 마지막 세트서 3발을 모두 10점 만점으로 쏘 4강전에 진출했다.

4강전 승부도 치열했다. 전남대표 박지훈(순천시청)과의 대결에서 1세트를 패한 뒤 2세트와 3세트를 모두 승리해 4-2로 앞선 상황에서 4·5세트를 연속 비겨 6-4로 승리했다. 특히 4세트에서는 양선수 모두 30점을 쏘 한치의 양보 없는 승부를 펼쳐보였다.

전남도 선수단은 2관왕이 다수 배출됐다.

전남에 첫 금 소식을 알렸던 양정두(전남연맹)는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이하 남일반)

부) 수영 자유형50m에서 22초52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하며 2관왕에 올랐다.

장거리 육상의 기대주 백승호(전국대)도 이날 남자대학부(이하 남대부) 하프마라톤에서 1시간07분02초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지난 13일 5,000m 금메달과 함께 2관왕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전남은 나아름(나주시청)이 여일반 사이클 도로개인독주 25km에서 35분15초950으로 우승하며 24km포인트레이스에 이어 2관왕을 김가람·김현미(곡성군청)가 여일반 볼링 5인조 4천077점으로 2인조에 이어 역시 2관왕에 등극했다.

광주·전남선수단은 대회 5일째인 15일 4개와 9개의 금메달을 각각 수확했다.

광주는 여일반 스쿼시 단체전 결승전에서 박은옥·강영진·김가혜(광주시체육회)가 인천선발에 2단식을 먼저 승리하며 2-0으로 완승을 거뒀다.

남자고등부(이하 남고부) 태권도 -80kg급에 출전한 박규성(광주체고)과 남일반 씨름 용사급의 최종경(중흥건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은 남고부 육상 원반던지기에서 한원남(전남체고)이 52m40으로 육상 남대부 세단뛰기의 김성호(한국체대)가 15m81, 남일반 태권도 -87kg급의 윤희성(한국가스공사), 여자대학부(이하 여대부) 태권도 -67급의 서소영(용인대)이, 여대부 유도 -70kg급의 김성연이 금메달을 따냈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15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남자대학부 축구 준결승전서 광주대학교의 김바다(왼쪽)가 선취골을 터트리고 있다. 대구/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치열한 승부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광주, 안세진 점전 끝 양궁 銀...광주대 축구 銅

전남, 장성문향고 女조정팀 2종목 연속 은메달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서 광주·전남 선수단이 비록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지만 치열한 승부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우선 광주여자대학교의 안세진은 15일 오후 대구시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대학부 양궁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진은 4강전에서 최성하(목원대)에 1·2·3세트를 연속 30-23, 29-27, 26-25로 연속 승리해 6-0 손쉽게 승리를 거둔 후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경기대표 정다소미(경희대).

안세진은 1세트를 26-26으로 비긴 뒤 2세트를 25-27로 내줘 1-3으로 뒤졌다. 3세트를 29-26으로

승리해 3-3으로 동점을 만든 안세진은 4·5세트를 연속 28-28로 무승부를 거둬 5-5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마지막 한발로 가리는 승부에서 안세진은 9점을 쏜 반면 정다소미는 10점을 쏘 6-5로 아쉽게 패했다.

전국체전 무대를 첫 데뷔한 광주대학교 축구팀(감독 정평열)의 선전도 돋보였다.

광주대는 이날 대구시민운동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축구 준결승에서 경기대표 경희대학교에 1-3으로 패하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광주대는 전반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며 주도권을 잡아 나갔다. 프리킥 기회서 골대 상단을

맞히는 등 분위기를 주도한 광주대는 전반 김바다의 골로 앞서 나갔다. 이후 광주대는 전력을 재정비한 경희대에 후반 연속 3골을 내줘 무너졌다. 광주대는 첫 출전에서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전남 장성문향고등학교 여자부 조정팀의 활약도 있었다.

장성문향고의 고예령과 김보미는 여자고등부 조정 더블스컬에 출전해 7분48초2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어 쿼터폴스컬에서도 신민하, 장나영과 함께 짝을 이뤄 최선을 다했지만 6분58초45의 기록으로 6분52초30을 기록한 서울체고팀을 앞지르지 못했다.

신광호 기자 sgh@namdnews.com

‘10연속 3관왕’ 장미란 “은퇴 문제는 심사숙고”

“은퇴 문제는 차분하게 심사숙고 하겠다.”

‘로즈린’ 장미란(29·고양시청)이 전국체전 10년 연속 3관왕에 등극했다.

장미란은 15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제93회 대구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일반부 75kg이상급에서 인상 121kg, 용상 155kg, 합계 276kg을 들어올려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왼쪽 어깨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장미란은 아쉽게 4위에 그쳤다. 그러나 장미란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한국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하며 올림픽에서의 아쉬움을 다소나마 씻어냈다.

장미란은 전국체전 10년 연속 3관왕(인상·용상·합계)의 진기록을 썼다. 용상과 합계는 11연속 금메달이다. 전국체전 총 메달 수도 38개로 늘었다.

장미란은 경기가 끝난 후 있는

인터뷰에서 “런던올림픽이 끝난 후 준비 기간이 짧았다. 휴식을 취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았다. 여기저기서 10연패를 얘기해서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욕심이 났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 아쉬움은 있었지만 허탈감은 없었다. 전국체전에서 큰 기록을 세운 것은 응원 해주신 분들 덕분이다”며 “이상하게 올림픽이 끝나니 부상 부위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고 웃어 보였다.

장미란은 전국체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체전은 국내 최고의 스포츠 축제다. 팬들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선수들이 올림픽만큼 충분히 준비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시기에 대해서도 장미란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다. 서른 전에 은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봤다. 차분하게 심사숙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보배 금과녁 명중

한국 여자양궁의 간판 기보배가 제 93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명중시켰다.

기보배는 15일 대구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장진희(예천군청)를 6-2(28-28 29-28 30-28 27-27)로 꺾고 정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금메달이 나오기 전까지 동메달만 두 개에 그쳤던 기보배는 드디어 '금' 부담을 털게 됐다.

런던올림픽 2관왕을 하고 지난달 말 일본에서 열린 양궁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우승했던 기보배였기에 전국체전에서의 기대감도 높았다. 광주 시선수단은 기보배가 첫 금메달을 광주에 안길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보배는 50m와 70m에서 동메달을 따는 데 그쳤다. 세계대회

개인전 상승세 결승서 장진희 6-2 제압 50·70m 동메달 이후 금...오늘 단체전

보다 국내대회에서의 경기가 더 어렵다는 속설을 실감케했다.

올림픽이 끝난 후 각종 행사와 인터뷰에 불려다니다 지난달 말 일본에서 치러진 월드컵 파이널까지 출전하며 체전 준비를 제대로 못하게 아나하는 우려도 섞여 나왔다.

하지만 역시 기보배였다. 4일간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살렸고, 개인전에서 과감하게 활시위를 당기면서 무섭게 결승까지 진출, 금메달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개인전 16강전과 8강전에서 대표

팀 동료인 최현주(창원시청), 이성진(전북도청)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른 기보배는 4강전에서도 박지훈(순천시청)을 6-4(27-29 29-26 29-27 30-30 28-28)로 제치고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결승에서 기보배는 첫 세트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세트에서 첫발과 두 발을 연이어 10점에 꽂으며 세트를 승리로 장식한 후 3세트에서 세 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켜 우승을 확정했다. 16일은 단체전 금메달에 도전한다. /최진화 기자



〈전남수영연맹〉

양정두 또 한국신

전남수영연맹 양정두가 또하나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양정두는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2초52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예선에서 23초05의 기록으로 결승 진출을 결정지었던 양정두는 결승에서 22초52라는 신기록을 수립하는 쾌거를 거뒀다. 양정두는 고양시청 박민규와 똑같이 레이스를 마쳐 기록도, 금메달도 공동으로 받아들었다.

자유형 50m 종전 한국 기록은 2002년 제2회 코리아오픈대회에서 당시 한진중공업 소속이었던 김민석 현 대표팀 코치가 작성한 22초55였

남자 자유형 50m 22초52...10년만에 경신 접영 50m 한국신 2개 이어 신기록만 3개

다.

양정두는 이 기록을 10년 만에 0.03초 줄이는데 성공했다.

지난달 회장배 대회에서 기록이 잘 나와 마지막 3주간 체전 준비에 올인했다는 양정두는 접영보다는 자유형 50m에 욕심을 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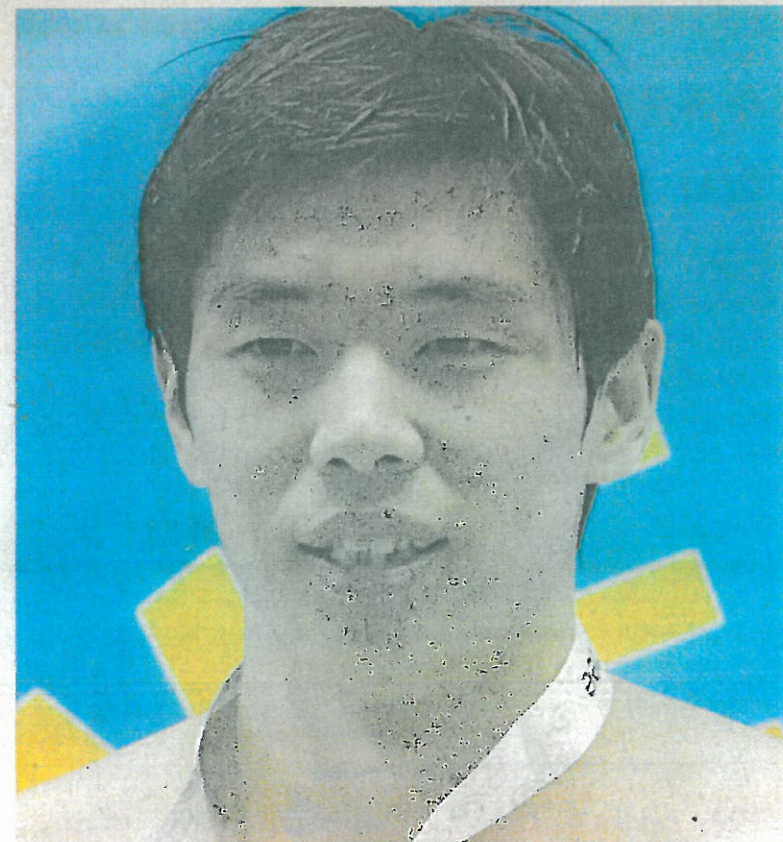
양정두는 12일 열린 이번 대회 접영 50m 경기 때 예선(23초91)과 결승(23초77)에서 잇달아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데 이어 목표했던

자유형 50m까지 석권하면서 이번 대회에서만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새로 썼다.

양정두가 이번 대회에서 수확한 메달은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하나(계영 400m) 등 세 개로 늘었다.

하지만 이날 계영 800m에서는 7분 43초44로 6위에 머물렀다. 양정두는 오는 17일 혼계영 400m에 출전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



양정두 수영 한국新 2관왕 금물살

전남 하룻새 금 8·은 10·동 6개 ... 광주시청 기보배 금메달 명중

전남 수영대표 양정두(전남연맹)가 한국신기록 행진으로 2관왕에 올랐다.

양정두가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에서 22초52의 한국신기록으로 결승 패드를 찍으며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앞선 접영 50m에서도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웠던 양정두는 이번 대회 깜짝 스타가 됐다.

양정두의 금빛 레이스와 함께 전남은 15일 8개의 금메달과 10개의 은메달 그리고 6개의 동메달을 추가했다.

사이클의 나아름(나주시청)이 여자 일반부 도로 개인독주 25km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회 2관왕이 됐고, 태권도 윤희성(한국가스공사)과 서소영(용인대)은 남자 일반부와 여대부에서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곡성군청 불림팀은 여자일반부 5인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육상에서도 3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김성호(한국체대)가 남대부 세단뛰기, 남고부 한원남(전남체고)이 원반던지기 우승을 차지했다. 남대

부 하프마라톤에서는 백승호(건국대)와 강성권(한국체대)가 나란히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금·은을 획득했다. 백승호와 강성권은 각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가 시상하는 상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았다.

광주는 금4, 은4, 동13개를 더했다. 대회 첫날 양궁 70m에서 동메달에 머물렀던 기보배(광주시청)가 여자 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명중시키며 국가대표 자존심을 지켰다.

스쿼시 여자 일반부 단체전에서 시

체육회 선수들이 금메달을 더했고, 광주체고의 박규성은 태권도 80kg에서 1위 시상대에 섰다. 씨름 남자 일반부 용사급에 출전한 최종경(중흥건설)도 광주의 금메달 레이스에 힘을 보탰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400m 계주에서 대회신기록인 39.90에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경기도에 0.41 뒤지며 2위를 기록했다. 금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지만 광주시청 육상팀의 메달 행진은 계속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정父女 은빛 미소

장성 문향고 고예령 은메달 2개 ... 고평선 장성군청 감독 '부전여전'

15일 대구 달성보 좌완 경기장에서 열린 조정 여자 고등부 경기에서 장성 문향고 선수들이 귀한 은메달 두 개를 전남에 안겨줬다.

고예령·김보미·장나영·신민하가 출전한 쿼드러플스컬에서는 서울체고에 이어 2위에 올랐고, 고예령과 김보미가 호흡을 맞춘 더블스컬에서는 충주여고 다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강팀 서울체고·충주여고가 3학년들로 팀을 꾸렸지만 문향고의 경우 3학년인 신민하를 제외하고 모두 1학년이다. 특히 광주체중에서 수영을 했던 고예령은 조정 입문 2년 만에 쟁쟁한 언니들을 누르고 전국체전 메달을 목에 걸며 눈길을 끌었다. 결승선에서 애타게 문향고 선수들을 기다린 고평선 전남 조정전무이사의 딸로도 화제다.

고예령은 중학교 3학년 때 조정 국가대표를 지냈던 아버지의 권유로 노를 잡았다. 엄마도 조정선수로 활동했던 조정인 가정이다.

수영을 통해 단련된 체력 그리고 아빠를 꼭 닮은 근성에 빠른 속도로 실력이 늘었다. 조정 시작 1년도 안돼 소년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부전여전'을 보여줬다.

아빠는 자신의 뜻을 따라 조정인의 길을

걸어 준 딸이 고맙고 예쁘다. 고된 훈련도 묵묵히 소화해내며 쑥쑥 성장하는 딸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다.

딸의 어떤 점이 좋냐는 질문에 "그냥 다 좋다"고 웃던 아빠는 사진을 찍을 때도 자신이 팔짱을 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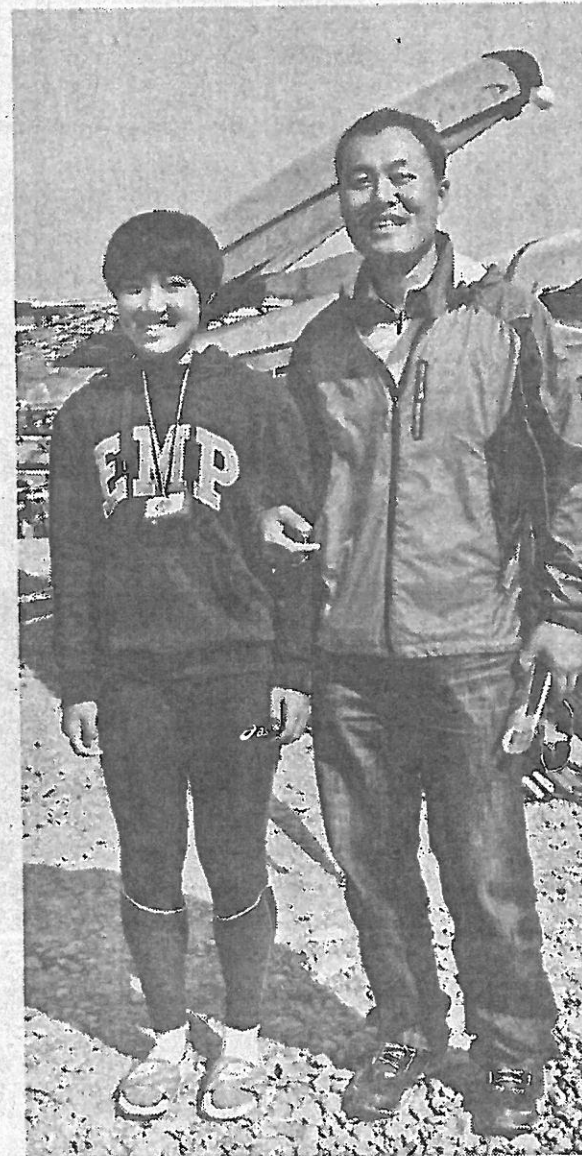
고등학교 1학년인 딸은 사실 아빠가 부담스럽다. 운동을 하면서 한눈을 팔 수도 없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하다. 그렇지만 고예령에게 아빠는 든든한 선배이자 최고의 스승이다.

고예령은 "아빠와 같이 운동하니깐 힘든 점도 있지만 집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기술에 대해서 따로 알려주시기도 한다. 많이 가르쳐주신다"고 말했다.

'딸바보' 고평선 전무는 "딸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부담스러운 되는 부분도 있다. 괜히 딸이니깐 더 챙기는 것 아니냐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훈련장이나 경기장에서는 똑같은 선수다"고 말했다.

아빠의 바람과 딸의 목표는 똑같다. 대를 이어 국가대표로 활약하는 것이다. 국가대표의 꿈을 꾸는 부녀는 내년 시즌 전국체전 정상을 그리고 있다.

/대구=김여울기자 wool@



첫 전국체전에서 2개의 은메달을 목에 건 장성 문향고 고예령(왼쪽)양과 아버지 고평선 장성군청 감독.

한국新 세계... 물만난 양정두

수영 자유형 50m도 우승... 양궁 기보배 개인전은 금과녁



전남 수영의 희망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가 제93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에서 또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벌써 3번째 한국기록이다.

양정두는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22초52로 터치패드를 찍어 한국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같은 기록으로 들어온 박민규(25·고양시청)와 공동 금메달이다.

종전 한국기록은 2002년 김민석(현 국가대표팀 코치)이 작성한 22초55였다. 양정두와 박민규는 이를 10년 만에 0.03초 단축했다.

양정두는 지난 12일 남자일반부 접영 50m 예선과 결승에서 각각 23초91, 23초77로 한국기록을 2번이나 세운 데 이어 이날 또 한국기록을 새로 쓰면서 2관왕에 올랐다.

전남은 또 사이클 도로개인독주 25km에서 금메달을 추가한 나아름(나주시청)과 육상 남자대학부 하프마라톤에서 1위로 골인한 백승호(건국대)가 2관왕을 달성했



10연속 3관왕 역도 일반부 75kg 이상급 경기에서 인상 121kg 1위, 용상 155kg(1위), 합계 276kg 1위를 기록한 장미란이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뉴시스

다. 또 곡성군청 불링팀이 여자일반부 5인조 경기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다.

동메달 2개로 체면을 구겼던 광주시청 기보배(24)도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기보배는 이날 열린 양궁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서 예천군청 장진희를 6-2(28-28 29-28 30-28 27-27)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는 이밖에 스쿼시(광주시체육회), 태권도(박규성·광주체고), 씨름(최종경·중흥건설)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메달레이스를 이어갔다. **고강인 기자 kiko@nllbo.com**

전남 양정두 3번째 한국新 남자 자유형 50m 10년 묵은 기록 깨

‘신기록의 사나이’전남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가 15일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수영 남자 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경기대표 박민규(고양시청)와 나란히 22초52에 들어오면서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종전 기록은 2002년 제2회 코리아오픈대회에서 당시 한진중공업 소속이었던 김민석 현 대표팀 코치가 작성한 22

초55였다.

양정두는 지난 12일 열린 접영 50m 경기 때 예선(23초91)과 결승(23초77)에서 잇달아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한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만 세 차례나 한국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회 MVP 경쟁에 뛰어 들었다.

이번 체전에서 양정두가 수확한 메달은 금메달 두 개와 은메달 하나(계영 400m) 등 세 개로 늘었다.

/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신궁 커플’ 오진혁·기보배 개인전 석권



기보배

‘신궁커플’ 오진혁(현대제철)과 기보배(광주시청)가 제93회 전국체육대회 양궁 남녀일반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나란히 명증시켰다.

오진혁은 15일 대구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개인전 임동현(청주시청)과의 결승에서 세트점수 6-0(29-25 28-27 28-27)으로 가볍게 이겨 금메달을 땀다.

2년 전 전국체전 결승에서 임동현에 밀려 2위에 그쳤던 오진혁은 이날 당시 패배를 제대로 되갚았다.

여자일반부 개인전 결승에 오른 기보배(광주시청)는 장진희(예천

군청)를 6-2(28-28 29-28 30-28 27-27)로 돌려세우고 1위를 차지했다.

16강전과 8강전에서 대표팀 동료인 최현주(창원시청), 이성진(전북도청)을 연달아 격파하고 4강에 오른 기보배는 4강전에서도 박지훈(순천시청)을 6-4(27-29 29-26 29-27 30-30 28-28)로 제치고 결승 진출권을 따냈다.

결승에서 기보배는 첫 세트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2세트에서 첫발과 두 발을 연이어 10점에 꽂으며 세트를 승리로 장식한 후 3세트에서 세 발을 모두 10점에 명중시켜 우승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전남 백승호·강성권 하프마라톤 金·銀

광주, 스쿼시 여일반 단체·태권도 박규성·씨름 최종경 金



전국체전이 중 후반으로 접어들며 메달 레이스가 치열하다.

전남은 15일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 육상 하프마라톤에서 백승호(건국대)가 1시간7분02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날 하프마라톤에 함께 출전한 강성권(한국체대)도 1시간7분15초의 기록으로 백승호에 이어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귀중한 은메달을 추가했다.

원반던지기예 나선 한원남(전남체고)은 52m40를 던져 대회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수영 접영 5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던 전남 양정두(21·전남수영연맹)가 또 일을 냈다.

대구 두류수영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자유형 50m 결승에서 경기대표 박민규(고양시청)와 나란히 22초52에 들어오면서 한국신기

록을 세우고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이클의 나아름(나주시청)도 도로개인독주25km에서 우승하며 메달사냥을 이어갔다.

전남은 김가람의 5명이 참가한 여자일반 불링과 육상 세단뛰기 김성호(한국체대), 태권도에서 윤희성과 서소영이 각각 금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광주는 양궁스타 기보배(광주시청)는 15일 대구 율하체육공원 양궁장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체면치레

를 했다. 하지만 개인전에 함께 출전한 안세진(광주여대)는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또 광주시청 육상 대들보 박태경과 임희남, 김민균 등이 출전, 금메달이 유력했던 남자일반부 4x100mR 경기는 경기도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광주는 스쿼시 여일반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했고 태권도 남자고등부 -80kg급에서 박규성(광주체고3)이 금빛 발차기를 선보였다.

또 씨름 남자일반부 용사급에 출전한 최종경(중흥건설)도 귀중한 금메달을 획득하며 고른 종목에서 선전을 펼쳤다.

/대구=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